

## 계시록 7 장      특별한 두 무리

본문은 삽입구적인 장이다. 즉 7장에는 두루마리의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소개되면서 계속되던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중단된다. 첫번째 소개되는 것은 144,000명의 무리이다.

계시록 7:1-3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7:1)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만약 스모그(공기의 공해)를 다른 곳으로 빠지게 하는 바람이 없다면 나성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겠는가? 단 며칠이라도 약간의 바람이 불어야 호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아 얼마 동안 세상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둘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7:2-3)

8장에는 일곱 나팔 심판이 나온다. 그 때 요한은 일곱 천사를 보는데 모두 각기 나팔을 갖고 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땅에 심판이 일어난다. 7장에서 요한이 본 땅의 사방을 잡고 있는 네 천사들은 8장의 일곱 나팔 심판을 가져오는 그 일곱 천사 가운데 처음 네 천사인 것으로 보인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잡아”라는 구절로 인해 성경의 권위를 깎아 내리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경 기자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당시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랬다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땅의 사방’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지 않았고 둥글다고 했다.(사40:22)

몇 해 전 미국 해병대는 본국의 해병대가 ‘세계의 사방’을 누비고 있다고 굉장히 자랑을 했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말인가? 요한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지구에는 동서남북이 있다. 그러므로 ‘땅의 사방’이란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쓰이는 표현이다.

이 네 천사들은 땅에 심판을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다섯 번째 천사가 등장하여 네 천사들의 행동을 막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된다.

계시록 7:4-8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7:4)

많은 단체에서 자신들을 십사만 사천 명의 무리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만일 내가 유대 민족이었다더라도 그들 144,000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는 대환난 동안에 남아 있고 싶지 않다. 따라서 144,000의 무리에 속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여러 단체들이 자신들이 바로 이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이 144,000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만이 하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930년대에 그들은 144,000명이 되었지만 오시리라 했던 주님은 오시지 않았기에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 거하게 될 새로운 무리를 형성했다. 이것은 하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땅에서 평화롭게 살면서 왕국 시대의 자녀들을 낳는 것이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의 제일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하늘 나라가 다 찼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세계 계획”(The World Program)의 허버트 암스트롱(Herbert W. Armstrong)은 그 조직이 144,000명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 광야로 피하여야 할 때 당신에게 전보를 보내 준다고 한다. 그들은 대환난 때에 마지막까지 살아 남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영적으로 왜곡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자.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7:4의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이 영적이라면 ‘144,000’이라는 숫자도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인 숫자일 수도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시록 7:4의 한 부분은 영적으로, 다른 한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하나님은 왜 영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을 섞어 놓으셨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인가?

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믿는다. 언젠가 144,000명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과 이야기한 적이 있다. 내가 “당신이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된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이상한 선생에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오. 당신이 성경을 단순히 그냥 읽기만 했다면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을 것이오”라고 말하자 그는 “그렇지만 성경은 ‘저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저것’은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시죠?”라고 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의미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이것은 그리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들리지 않는다. 매우 명확하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다른 어떤 해석도 그것은 단지 해석일 뿐이다.

성경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불필요한 많은 혼란에 빠진다. 자기들이 144,0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다니엘의 칠십 ‘이레’를 모르는 사람들이다(단9:24-27). 예언된 이스라엘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전적으로 모든 예언의 개념을 혼란시켜 아무런 의미도 없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바는 대환난으로 알려져 있는 마지막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대환난은 다니엘이 예언한 70년 가운데 마지막 ‘이레’이며, ‘야곱의 환난의 때’로도 알려져 있다.(렘30:7)

하나님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에 대비해서 인치셨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출12:13-14). 하나님은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인을 치셨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실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한 것이다.

에스겔 9장도 백성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먹그릇을 찬 사람(천사)이 그 땅에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심판이 이르면 천사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남겨질 것이다. 인맞은 특별한 무리가 있다는 것이 계시록 7:4에 있는 상황과 똑같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이 의도하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려 했는지 말해 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혼란이 온다. 허버트 암스트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노라 할 것이고, 여호와와 증인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다 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무리는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하나님의 명백한 아들들’로 자처하는 무리들 역시 제 나름대로 해석하여 말할 것이다. 이처럼 모두가 다르게 말하는데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시도가 혼란스러울 뿐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협잡을 하는 듯한 이런 상황을 예견하신 것처럼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144,000의 무리를 말씀하실 때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열두 지파의 이름도 다 기록하셨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 된 자들이라고 했다(갈3:7).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영적인 지파를 말하지 않았다.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교회를 지파로 분류하지 않는다. 열두 지파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실제적 후손에 이르게 된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영적 자손이 아닌 아브라함의 실제적 후손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무리를 영적으로 보고 그 수를 헤아려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두 지파에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을 각각 12,000명씩 부르고 계시다.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스블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7:5-8)

성경에서 “열두 지파”가 자주 언급된다는 점도 흥미롭다(12는 통치, 다스림을 나타내는 수임). 그런데 여기에서는 언급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지파가 있다.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면 레위 지파는 열두 지파 가운데 들지 않는다.

다른 두 지파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첨가되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즉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었다.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열두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는 빠지고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다.

단과 에브라임 대신 레위와 요셉 지파가 열두 지파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면 그는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셨다(신29:18-21).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여로보암이 세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두 개의 금송아지를 세움으로써(왕상12:28)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인 맞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대한난의 모든 시련을 겪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다른 지파의 인맞은 자들은 바람이 상하지 못한다. 계시록 9장에 보면 무저갱에서 나온 마귀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즉 144,000명을 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는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하나님의 심판에 남겨지게 된다.

계시록 7장에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에스겔서에 있는 대로 땅을 재분배하실 때는 가장 처음 분깃이 단 지파에게로 돌아간다(겔48:1). 단 지파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인치심을 받지 못했지만 가장 먼저 땅을 분깃으로 받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많이 저버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 계시록 7:9-1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7:9)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 아마도 계시록 6장에 다섯 번째 인에 나오는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일 것이다. 흰옷을 입은 그들이 울면서 “대주재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하자 ‘기다리라’는 말씀이 주어졌다. 계시록 7장에서는 6장에서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던 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들의 수가 완전히 채워진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늘 나라로 올라가게 된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그들 무리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있다. 이 “큰 무리”가 교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먼저 한 장로가 요한에게 물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7:13)

이 질문은 하늘 나라에 있는 이들이 요한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 무리가 구약성경의 인물들이었다면 요한은 그들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던 것처럼 말이다. 이 무리가 교회였다면 요한은 하늘 나라에 있는 그들을 쉽게 알아보았을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실 것이라는 교회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 비밀은 사도 요한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요한은 밧모 섬에서 계시를 받았지만 에베소에 있는 이방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그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요한은 각 나라에서 나온,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다. 장로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 준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7:14)

그들은 대한난 때에 순교한 자들이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들의 증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큰 무리’가 하늘 나라에 왔지만 교회와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7:15)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반면에 교회는 섬기는 자로 하늘 나라에 있지 않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혼인 예식을 한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다스릴 것이다.

이 큰 무리는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한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7:10-11)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요한이 처음으로 하늘 나라의 모습을 묘사한 계시록 4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다. 스랍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돌릴 때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졌다. 이 큰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받은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자 네 생물(스랍)과 이십사 장로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7:12)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에 주목하라. 대환난을 오래 겪으면서 그들은 끔찍한 배고픔과 갈증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고통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로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7:16-17)

계시록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세를 해에게 주신다.